

민주당 대표 경선 세종시·충북서 김한길 1위

‘이해찬 대세론’ 붕괴... 수도권까지 가나

손학규 영향력 작용... 전북·강원서도 앞설 가능성

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대의원 지역순회 경선에서 압도적 1위가 예상됐던 이해찬 후보가 29일 세종시·충북 경선에서도 김한길 후보에게 참패한 것은 ‘이해찬 대세론’의 완전 붕괴를 의미한다는 해석이다.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구다. 김한길 후보가 1위를 차지하고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여건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을 뒤엎었다. 이날 선거 결과에 대해 정치권에 서는 충북에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는 손학규 상임고문 측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이해찬-박지연 담합’에 대한 비판 여론이 경선 관세를 결정하면서 문재인 상임고문의 대선 도전 앞길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해찬 후보 측은 70%를 차지하는 시민·당원 경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백만민단’ 등 친노(친노무현) 성향의 각종 단체가 적극 나설 경우, 이 후보가 어렵게나마 당 대표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비노(비노무현)계의 정점에 있는 손학규고문계가 가장 강한 지역이어서 이 후보에게는 약세지역으로 꼽힌다. ‘이해찬-박지연 담합’에 대한 비판 여론이 경선 관세를 결정하면서 문재인 상임고문의 대선 도전 앞길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해찬 후보 측은 70%를 차지하는 시민·당원 경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백만민단’ 등 친노(친노무현) 성향의 각종 단체가 적극 나설 경우, 이 후보가 어렵게나마 당 대표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해찬·김한길 후보가 29일 청주 명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지역구도로 대선 접근 비과학적”

손학규 “문재인-김두관 싸움은 국지적 현상”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29일 “대선구도를 지역구도로 중심으로 보는 것은 그렇게 과학적, 객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민주당 당권경쟁

이 문제인 상임고문과 김두관 경남지사 지원 후보 간 싸움이 되고 있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대해 “부산·경남의 국지적 현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손 고문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수도권 중간층의 선택”이라며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 통합의 능력, 소통의 자세 같은 것들이 판단기준이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지지를 저조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뽑는 것은 시대정신”이라며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누가 잘 살게 해줄지,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국민과 제대로 소통할지 등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선택한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대표경선에서 김한길 후보의 예상외 선전에 대해 “선거에서 당원과 국민을 배제해 놓았을 때 국민이 ‘우리 여기 있다’고 나서서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민주당의 지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찬-박지연 역할분담론을 비판했다. 그는 또 “당대표, 정당 생활을 해오며 패거리, 계파, 계보 만드는 것을 멀리해 왔다”며 “2011년 분당 보선 승리 후 주변 사람들이 손학규 계보를 만들자며 구체적 모임을 가지려 했지만 제가 저지했다”고 소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통합진보당 10명 비례대표 후보 사퇴

서울시당 당기위, 이석기 김재연 등 제명 심사

유시민 전 대표도 사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쟁명부 후보 9명과 유시민 전 대표가 29일 비례대표 후보직을 공식 사퇴했다. 그러나 구당권파인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와 조윤숙·황선 후보는 끝까지 사퇴를 거부해 30일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사퇴한 9명은 모두 신당권파로 김수진·나순자·노환래·문경식·박김영희·오목만·윤갑인재·윤나실·이영희 후보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총선 비례

대표 경선 선거 부정에 대해 통탄한다”며 “부정선거는 누구보다 정의롭고 민주적이어야 할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이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국민을 배신한 행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락공천으로 12번을 받은 유시민 전 대표도 이미 사퇴의사를 밝혔듯이 이날 중앙선거위에 후보 사퇴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당초 사퇴 입장을 밝혔던 윤금순 비례대표 1번 당선자는 사퇴를 보류했다. 대신 윤 당선자는 의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국회에 입성하기로 했다.

그의 사퇴 보류는 의석에서 다수를 확보하려는 신당권파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자 사퇴 여부에 따라 신당권파와 구당권파의 당내 세력분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당기위는 오늘 오후 첫 회의를 갖고 사퇴를 거부한 비례대표 4명에 대한 제명 심사에 착수했다. 당기위는 구당권파인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와 조윤숙·황선 후보를 상대로 다음달 2일 회의에서 출석 또는 서면을 통해 소명을 듣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민에 실망 죄송”

통합진보당 오병윤 당원 비대위원장

통합진보당 당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병윤(광주 서구을) 당선자는 29일 “당내 부정선거 의혹과 내홍으로 광주시민에게 커다란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사회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오 당선자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을 통해 새로운 정치를 열망했고, 야권연대 후보를 통해 정

권교체 명령을 내려주시는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광주시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오 당선자는 그러나 “일련의 통합진보당 사태의 원인이 됐던 ‘5·2 진상조사보고서’는 실제적 진실이 부족하고 견해 차이가 큰 만큼 비례대표 사퇴를 포함한 당 정상화 방향은 새롭게 구성된 진상조사특

위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부실은 있지만 부정은 없었던 만큼 변호사와 IT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특위의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사퇴 등 당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예비후보 사퇴문제는 예비후보 개인적 책임 여부와 당의 선거관리 책임, 국민 정서, 당원의 판단 등에 근거해 결정돼야 한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종북세력 지적은 옳지 않은 개념이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통일당 대표 이인제 의원

한미 특수부대 낙하산 타고 북 잠입

선진통일당(구 자유선진당) 초대 당대표에 이인제 의원이 선출됐다. 통일당은 29일 오후 서울 63빌딩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신임 지도부를 구성했다.

당대표 경선에서는 이인제 의원이 투표 참가 대의원 1103명 가운데 934표를 얻어 당대표로 당선됐다.

이 대표는 4·11 총선에서 5석을 얻어 군소정당으로 전락한 통일당을 살려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됐다. 그러나 당의 최대주인 이회창 전 대표가 탈당하고, 전총선 텃밭인 충청권에서의 위상도 약해진 상황에서 당의 존재감을 높이는 혁신 작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北 지하시설 정보 수집

미국과 한국의 특수부대가 북한의 지하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낙하산을 타고 북한에 잠입했다고 미국의 ‘더 디플로맷’이 28일 (현지시간) 날 톨리 주한미군 특수전 사령관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슈를 다루는 미국의 온라인매체 ‘더 디플로맷’은 톨리 장군이 지난주 미 플로리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지난 1950년 한국전 이후 수천 개의 지하터널을 뚫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군 고위인사가 군사기

밀을 이처럼 깜짝 공개한 것은 미국이 한반도의 ‘냉전’, 즉 북한이 현재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톨리 사령관은 또 “북한의 지하 터널 구조를 전체가 은닉돼 있어 우리 위치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한국군과 미군 특수부대원들을 특별 정찰활동 임무를 주고 북한으로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그러나 이 같은 보도내용이 “잘못 인용된 내용”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

부동산경매 특새 노려라!...NPL 투자 '열풍' 부실채권(NPL) !! IMF때 대박났던 부실채권 다시 인기!! !! 근저당권 매입 후 경매건당 수천만원~수억원 수익!!

(주)오천경매 투자연구소 상담문의 010-3605-5000 경매투자 ▶경매비법 배우면서 수익 내실본 ▶입찰반 / 회비 550만원(4명 한) ▶이론반 / 회비 55만원(24명 한) ▶특수물건만 취급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매매교환 전문 빌딩, 모텔 땅 상가 건물 10억이상~100억이상 건물을 급히 구합니다.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광고물건 (상가빌딩매매) \*사구 생충동 상무지구 상가빌딩 대지 104평 건평 310평

상가/원룸 매매 ▶총 합계 : 보증금 4,500만원 월세 800만 ▶1층 편의점 원룸 21개, 투룸 4개